

호주] 6월 관광시장 동향조사

□ 호주 관광시장 주요 동향

○ 호중동 리스크와 강달러 영향으로 유럽·중동 대신 여행목적지 아시아 선호 강화

- 6월 호주 시장에서는 중동 경유 불안과 호주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유럽·중동보다 아시아를 선호하는 흐름이 두드러짐. ABC는 6월 21일 보도에서 호주 여행객들이 중동 경유를 꺼리며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목적지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고, 최근 3년간 호주달러가 이들 현지 통화 대비 약 20% 절상됐다고 설명함. 또한 4월 발표된 ATIA 자료에서도 미국행은 연간 -4.8%, 2월 -9.7% 감소한 반면 베트남 +16.1%, 중국 +15.9%, 일본 +15.6%로 아시아 쏠림이 확인됨.

○ 중동 항공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환승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

- 호주 정부는 6월 17일부로 카타르·UAE·바레인·쿠웨이트 등에 대한 여행경보를 'Do not travel'에서 'Reconsider your need to travel'로 하향했지만, 여전히 환승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월 호주 여행업계는 중동 허브 운항 정상화 여부와 여행보험 적용 범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ATIA도 6월 24일 관련 웨비나를 열어 대응 정보를 제공함. 즉 6월 시장은 항공편이 전면 위축되기보다는, 장거리 수요가 아시아로 일부 이동하고 중동 경유 장거리 노선은 신중 예약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해석됨.

○ 6월은 시드니 대형 이벤트와 연휴가 도시관광을 견인

- 시드니에서는 Vivid Sydney 2026이 5월 22일~6월 13일 개최됐고, Destination NSW는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무료로 운영하며 겨울철 도심 관광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고 밝힘. 특히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기아가 5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며 한-호 간 기술·문화 협력의 정점을 보여줌. 여기에 NSW의 King's Birthday 공휴일(6월 8일)이 겹치며 6월 초 단기 도시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됨. 다만 NSW 겨울방학은 7월 6일 시작이어서 6월 하순은 실제 여행 출발보다 7월 방학 수요의 선행 예약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거시경제 압박 속 가성비 중심의 견조한 여행 수요

- 최신 공식 통계인 2026년 4월 ABS OAD 기준 호주인의 단기 해외여행 복귀(Short-term resident returns)는 1,092,38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NSW는 354,140건으로

+7.0%를 기록함. 같은 흐름으로 시드니공항도 2026년 1분기 국제여객 457만 명(+5.8%)으로 역대 최고 1분기 실적을 기록해, 6월 시장 역시 국제여행 수요의 기반 자체는 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누적 외국인 입국객 수는 6월 3째주를 기점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인바운드 통계에서도 한국은 팬데믹 이전을 초과하는 회복 강세 마켓으로 평가됨(2026년 6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28% 방한객 증가 예상). 이와 같은 아시아 선호 트렌드와 호주인들의 실속형 예약 패턴을 겨냥하여, 현지 업계 협업을 통해 하반기 방한 수요 가속화 및 실질적 예약 전환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고금리·고물가에도 소비는 유지되나, 가격 민감도는 계속 높음

- RBA는 6월 17일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했고, ABS의 5월 CPI는 전년 대비 4.0%, 전사평균 물가는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반면 5월 가계지출은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5.5% 증가해 소비 자체는 버티고 있음. 이에 따라 6월 호주 관광시장은 여행 수요가 꺾이기보다는, 특가 운임·단거리 노선·취소 유연성 등 가성비 중심 예약 패턴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정리됨.

○ 크루즈는 완전 비수기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성수기 대비 존재감은 약화

- Port Authority NSW의 5월 말 시드니항 스케줄상 Carnival Splendor 등 일부 크루즈 입항은 계속 확인되지만, 4월 이스터·가을방학이 지난 뒤에는 크루즈가 월간 수요를 견인하는 주된 축이라기보다 보조 수요로 작용하는 모습임. 이에 따라 5월 시장은 크루즈보다는 항공·도시 이벤트·단거리 해외여행 선호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구조로 해석됨.

출처:<https://www.abc.net.au/news/2026-06-21/asia-attractive-tourism-destination-despite-war-in-iran/106810908>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tourism-and-transport/overseas-arrivals-and-departures-australia/apr-2026>

<https://www.smartraveller.gov.au/news-and-updates/travel-and-security-impacts-conflict-middle-east>

<https://www.vividsydney.com/>

<https://www.rba.gov.au/>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price-indexes-and-inflation/consumer-price-index-australia/latest-release>